

KIGEM

한국도로공사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정진민 한국도로공사 건설처장
이의준 한국도로공사 건설계획팀장



1.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견인차 경부고속도로

1970년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면서 한국의 경제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눈부신 고도 성장을 이룩했다. 변변한 공장 하나 없던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 경부고속도로 건설계획을 발표했던 1967년 3억달러에 불과했던 수출액은 3,600억 달러를 돌파했고, 100달러 남짓하던 1인당 국민소득은 2만달러를 오르내리고 있다.

이처럼 빠른 한국의 경제성장 배경으로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손꼽는 학자들이 많다. 한국 경제를 바꾼 가장 위대한 순간 1위로 손꼽히는 '경부고속도로 건설', 그 길에 한국도로공사가 있었다.

2. 한국도로공사의 어제와 오늘(~2011)

한국도로공사(이하 도로공사)는 “도로의 설치 및 관리와 이에 관련된 사업을 통해 도로의 정비를 촉진하고 도로교통의 발달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1969년에 설립되어 올해로 44년을 맞았다.

도로공사는 그동안 3,631km의 고속도로 건설을 통해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해 왔으며, 2011년 고속도로 이용차량 13억대, 통행료 수입 2.9조원 등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건설기업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또한, 2011년 ‘도로 인프라 발전기여 캄보디아 국왕 훈장’, ‘전국 발주청 VE 경진대회 3년 연속 대상(국토해양부)’, ‘재난대응 최우수 국무총리 표창’ 등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도로교통전문기업으로의 위상을 인정받고 있다.



기업이념 및 전략목표

그리고, 지난 6월 장석호 사장은 취임이후 ‘고객가치 제고 스마트 서비스 강화’, ‘지속가능 도로사업 개발 확충’, ‘글로벌 사업 및 가치창조 경영’, ‘사회적 책임 및 경영효율화 추진’ 의 4가지 전략목표를 설정하였고, 이의 달성을 위해 2011년도에 전사적으로 노력하였다.

그 결과 준공노선 조기개통, 적재불량차량 합동단속, 통행료 지불 첨단화, 휴게소 불법노점상 안전철거 등의 주요성과를 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지속적인 고속도로망 확충이다.

고속도로 건설에 총 2조 2천억원을 준공임박 및 도심부 확장사업 등에 증점적으로 투자하여 준공노선(신갈~호법, 진주~마산)을 조기개통하였고, 전주~광양 노선을 단계적 조기개방하였다. 그 결과 연간 물류비 1,617억원, CO₂ 5만톤 절감이 기대된다.

또한 건설투자 예산 2조 2천억원의 상반기 조기집행(약 60%)을 통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건설현장의 자재·장비업자까지의 대금지급확인을 통해 사회적 약자와 더불어 가는 건설현장을 만들어 가고 있다.

둘째, 교통정체 해소 및 교통안전 선진화이다.

우선, 고객이 공감하는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정체기준 속도를 30km/h에서 40km/h 로 상향하였고, 2014년까지 정체구간율을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수립하였다. 이를 위해 2011년도에는 고속도로 확장, 부가차로 및 갓길차로 설치 등으로 41km의 정체를 해소하였다.



고속도로 갓길차로 설치

그리고, 고객중심의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졸음사고 예방을 위한 졸음쉼터 40개소 설치, 고속측중기를 활용한 과적차량 단속, 고속도로 순찰대·교통안전공단·지자체 등과의 적재불량차량 합동단속 등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가 265명으로 전년대비 25%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셋째, 통행요금체계 개편 및 통행료 지불 첨단화이다.

기본 주행요금 인상, 주말할증, 출퇴근 50% 할인대상 확대 등 시간대별 차등요금제 도입으로 통행요금 체계를 개편하여(2011. 11. 28일) 향후 침두시간 교통분산의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하이패스 이용대상 차량 확대(견인차 등 특수차량) 등을 통해 하이패스 이용률 53.6%, 전자지불 이용률 68%를 달성하였고, 교통카드 전국호환 서비스 개시로 통행료 지불 첨단화를 정착시켰다.



하이패스 시스템

넷째, 휴게시설 고품격 서비스 제공이다.

고속도로 30년 숙원사업인 휴게소 노점상 문제를 해결하였다. 전국 328곳의 불법노점상을 완전철거하고 그 자리를 장애인 임신부 주차공간으로 환원(총 1,150면)하였고, 노점상에게는 잡화코너 ‘Hi-shop’을 164개소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음지의 노점상을 양성화 하는데 성공하였다.

또한, 휴게소 내 총 5개소에 ‘휴&쇼핑’을 개관하여 중소기업제품을 전시판매 할 수 있도록 하여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에도 충실하였다.



휴게소내 Hi-shop 운영

하지만, 2011년도의 이러한 가시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따라 도로공사는 내부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수준의 세계 최고 일등 공기기업으로의 변신을 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 되어 있다. 또한, 세계경제 악화와 정부의 SOC 투자 축소 등으로 국내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건설업체 경영난이 가중(도급순위 100대 건설사 중 법정관리, 워크아웃 28개사)되고 있어 이를 해결해야 하는 당면과제를 안고 있다.

3. 한국도로공사의 내일(2012년~)

이에, 도로공사에서는 대내외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인 고속도로망 효율적 확충, 교통안전과 교통소통, 스마트 도로관리, 고품격 서비스 제공, 신사업 추진과 공생발전 등의 2012년 업무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지속적인 고속도로망 효율적 확충이다.

도로공사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투자규모를 연 2.5조원 수준으로 적정화하고, 투자효율 극대화를 위해 준공 임박사업, 도심부 확장사업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목포-광양은 금년 4월, 하조대-양양과 여주-양평은 금년 12월 조기개통을 추진하며, 경기활성화를 위해 금년 건설예산의 60%인 1조 5천여억원을 상반기 중 조기집행할 계획이다.

공사입찰제도로는 기술력 향상 유도 및 입찰방식 다양화

를 위해 기술제안입찰 및 순수내역입찰 등을 도입해 나가며, 적정공사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저가심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고속도로 공용 중 발생하는 하자 및 유지관리비를 고려한 평가지수를 개발하고, 노무비 체불을 사전 차단하는 등의 노력을 해 나갈 계획이다.

표 . 2012년 개통예정 구간

구 간	연 장(km)	개통시기	비 고
계	136.9		
목 포-광 양	106.8	2012. 4	8개월 단축
하조대-양 양	10.8	2012. 12	36개월 단축
여 주-양 평	19.3	2012. 12	

나아가,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ling) 설계기법, 양방향 4차로 대단면 터널 설계기법, 도로시설물의 프리캐스트화 확대 등 신개념 설계기법을 적극 도입해 나갈 것이다.

둘째, 교통안전과 교통소통이다.

201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률 50% 감소를 목표로 교통안전 선진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휴게시설 간격이 15km를 초과하는 구간에 소규모 주차장·벤치 등을 구비한 졸음 쉼터 70개소 설치,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사고 자동감지시스템, 헬기를 활용한 응급구조 시스템 및 진입로 신호조절과 갓길차로제를 확대 설치하여 교통정체를 해소해 나갈 것이다.

셋째, 스마트 도로관리이다.

노면온도 예측시스템 운영확대를 통해 적기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지열 태양광 등을 활용한 친환경 융설시스템을 확대하여 자연재해에 대비해 나갈 것이다.

또한, 고속도로 포장파손의 주된 원인인 과적차량 단속을 위해 고속도로 톨게이트 입구부에는 축조작 차량 단속설비를 확충하고 본선상에는 고속 주행중인 차량의 중량을 측정할 수 있는 무인·무정차 과적차량 단속시스템을 추가 설치하여 도로 구조물 및 노면 파손을 예방하고 운전자들의 주행 안정성 향상을 도모해 나갈 것이다.



스마트 하이웨이 조감도

넷째, 고품격 서비스 제공이다.

유명브랜드 확충(300개소)과 더불어 의류매장, 패밀리레스토랑, 커피전문점 등이 결합된 복합휴게 공간을 창출하고, 경연대회 등을 통한 다양한 음식메뉴 개발, 식품영양표시제, 나트륨 저감화 등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 제공으로 휴게서비스의 품격을 향상시키도록 하겠다.

또한, 하이패스 시스템 에러율 감소, 재정~민자구간 통행시 중간정산의 불편해소를 위한 통합정산체계 구축 등을 통해 통행요금 지불체계를 개선해 나가며, 휴게소 주유소는 연간 단가계약 형태의 유류공동 구매와 셀프주유시 설치 등을 통해 가격인하를 추진해 나갈 것이다.

다섯째, 신사업 추진과 공생발전이다.

해외전문 인력보강을 통한 해외사업 추진, 폐도 및 도로시설물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 도로자산을 활용한 수익사업 추진 등을 통해 공사 수익기반을 다변화할 것이다.

또한, 생명나눔(헌혈, 해외심장법 치료사업, 고속도로 장학재단 등), 전문건설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적용확대, 입찰시 하도급계획의 적정성 심사를 통해 나눔경영과 공생발전을 선도해 나갈 것이다.

한강의 기적을 이끌고 민족의 자긍심을 고취하여 기적의 역사를 함께한 경부고속도로 40년, 대한민국의 성장신화를 주도했던 저력으로 도로공사는 국민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정책을 적극 발굴·추진하여 국민에게 사랑받고, 나아가 최첨단의 신개념 스마트 하이웨이를 통해 또 다른 변신을 통해 세계 최고 도로교통기업이 되도록 할 것이다.